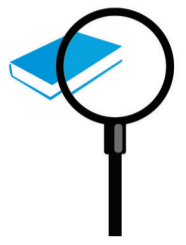


엑스트라 아닌 주인공으로 살았던 '조선의 센 언니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조선의 걸 크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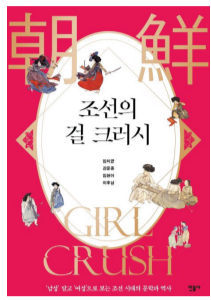
임치균 외 지음

김녀, 다모, 윤희순, 이매현, 김금원, 하옥주, 부량...

위에 언급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주제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며 살았던 조선의 여성들이다. 쌍갈을 든 검객에서부터 전쟁 영웅이 된 기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여성들은 요조숙녀와 현모양처라는 정체성을 넘어 억압적 세계와 맞서는 삶을 살았다.

영어 어휘에 '크러시'(crush)가 있다. '놀러 부수다', '박살내다'라는 뜻을 지닌 크러시는 파괴적인 행동과 연관이 있다. 억압에 지배당하지 않고 불의의 현실과 맞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한다.

그런 관점에서 말하면 위에 열거한 여성들은 요즘말로 하면 '조선의 걸 크러시'다. 일명 '조선의 센 언니들'이다. 이들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여성들보다 주제성을 견지하며 '주인공'의 삶을 살았던 이들을 주목했다.



제목부터 눈길을 잡아끄는 '조선의 걸 크러시'에서는 조선의 여성 영웅들을 만날 수 있다. 조선시대 실존 여성 또는 역사적으로 실재했다고 알려진 여성들의 특별한 삶과 서사를 모았다.

저자는 모두 4명. 임치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강문종 제주대 국문과 부교수, 임현우 덕성여대 글로벌교육원 초빙교수, 이훈남 전주대 인문과학융합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가 참여했다. 사제지간인 이들은 실록이나 문집을 포함해 한문단편소설, 야담 등을 기본 텍스트로 분석하고 기존 연구 성과를 참조해 책을 펴냈다.

모두 40가지 이야기는 조선 여성들에 대한 오해를 씻겨낸다. 각각의 이야기는 강렬하면서도 짜릿하다. 지레짐작으로 궁중의 여성들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조선의 걸 크러시는 한류 열풍의 원조로 꼽히는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 서장금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의녀 장금의 기록을 모티브로 탄생된 캐릭터가 바로 대장금이다.

그러나 언급한 대로 책에는 궁중 여성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남성을 능가하는 시문을 짓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했던 여성, 남편을 길들여 출세시킨 여성 등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진취적이고 주제적인 여성으로 조선의 시인 김



조선시대 여성들 가운데는 주제성을 견지하며 자신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었다. 절개를 지키고자 코를 자르는 여성(민속박물관 소장).

금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녀는 고작 14세 때 남장을 한 채 전국의 명성지를 유람한다. 제천 의림지를 시작으로 단양,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한양의 남산까지 오른다. 1830년에 옛된 소녀가 그런 일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춤뿔 쌍갈을 휘둘러 원수를 갚은 이도 있다. 그 여성은 양반집 아가씨의 몸종이었는데 검객에게서 검술을 배웠다. 아가씨가 9세 무렵 권세가에 의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던 것이다. 몸종은 아가씨와 함께 원수의 집을 찾아가 복수를 한다. "달빛을 타고 춤을 추듯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닿는

곳마다 머리가 떨어져 금방 수습이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은 여성의 칼 다루는 솜씨가 어떠한지 보여준다.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이야기는 애국하는 데 남녀 구별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계기로 유생을 중심으로 의병 운동이 전개된다. 윤희순은 의병에 나가려고 하지만 시아버지의 간곡한 만류로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 전투에 나가지 않고도 싸울 수 있는 방식, 즉 군자금을 모으고 화약과 탄약을 만들어 보낸다.

조선 여성 사업가로 만덕을 빼놓을 수 없다. "배

를 만들고 다스리는 해양 운송업에 능했으며, 한양과 제주를 물가 변동을 분석해 상품 거래의 시점을 정했다. 특히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재산을 지역사회로 환원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는 등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했다."

이밖에 책에서는 군복을 입고 전쟁터로 달려간 소녀 부랑과 소설가로 이름을 떨친 전주 이씨, 조선 최고의 여가수 석계 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민음사 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숙한 과부들을 위한 발칙한... 발리 카우르 자스웰 지음, 작은이미 외 옮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 폴란드, 독일, 스웨덴 등의 출판사들과 번역출판계약을 맺었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또한 2018년 리즈위더스폰 북클럽과 걸리 북클럽 추천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성들의 욕망과 연대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를 담은 소설, '정숙한 과부들을 위한 발칙한 야설 클럽'은 출간 즉시 세계 각국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텔마와 루이스', '마션' 리틀리 스코트 감독 제작사에 영상화 판권이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작가 발리 카우르 자스웰은 이야기의 힘을 믿으며 문학을 매개로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

이번 소설은 22세 인도계 영국인 여성 니키가 우연히 스토리텔링 수업의 강사직을 맡으며 벌어지는 일을 형상화했다. 그녀의 학생은 영국 내 인도 교민 여성들로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사별한 여성 노인들이며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성적 판타지가 있는데, 이것을 풀어놓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삶은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된다.

영국 내 인도 교민 여성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지만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가슴 뛰는 일을 찾아 헤매는 청춘을 비롯해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혐오 문제, 나이가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것같은 시각 등이 그것이다.

소설은 교민 1, 2세대의 삶을 다루는 디아스포라적인 성격을 지니는 만큼 우리의 정서에도 부합되는 면이 있다. 보수적인 환경에서 억눌림을 경험했던 이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펼쳐진다. 무엇보다 제목이 눈길을 잡아끈다. <들녘 1만7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화의 여행 베스 베넷 지음, 성세희 옮김

전 이스라엘 총리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노년이란 폭풍 속을 날아가는 비행기와 같다. 그 비행기에 탑승한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노년과 노화는 숙명처럼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것인지 모른다.



팔리 불교경전에는 또 이런 말이 있다. "왕의 화려한 수레들이 늙어 못 쓰게 되듯, 이 육신 역시 늙어간다." 인간의 유한함, 늙어감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을 빗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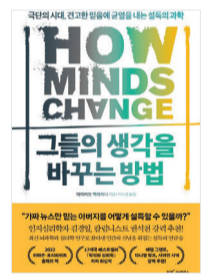
피부가 처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세는 등 노화의 흔적이 밖으로 드러나는 동안 몸의 세포와 조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노화를 역행하는 '항노화' 비법이 있는지 등을 담아낸 '노화의 여행'은 눈길을 끄는 책이다. 유전학 박사이자 노화학자 베스 베넷은 노화를 방지하는 안티에이징 시크릿을 파고든다. 저자는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 직접 조인하기보다 신체 시스템이 노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탐구한다. 단순히 수명만 연장하는 것이 아닌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1장에서는 노화에 맞서는 안티에이징 전략은 물론 제로사이언스로 불리는 노화학의 오늘을 이야기한다. 2장은 진화론을 포함해 노화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들을 소개한다. 노화과정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3장은 노화로 야기되는 피해를 줄이려는 접근법을 보여준다. 4장부터 8장까지는 노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부터 노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치료법이 있다면 그 작용법과 부작용 등을 살펴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개선이다. 저자는 과학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실천 가능한 행동변화와 화학적 조정 방법을 제안한다. <레온하스-문 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 데이비드 맥레이니 지음, 이수경 옮김

아무리 명백한 사실과 근거를 들이대며 설명하고 반박해도 도통 이해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문을 닫게 된다. 유튜브에 난무하는 가짜뉴스를 맹신하고, 정치적 편향과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더더욱 힘들다.



데이비드 맥레이니의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더 이상 이성적 통하지 않는 탈진실의 시대, 인간의 신념은 바뀌지 않는다는 통념을 깨고 타인의 마음을 바꾸는 법을 소개한 책이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각의 심리학'의 저자인 그는 미국 최고의 언론인상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과학 저널리스트로 이 책은 '2022 아마존 과학·경제 부문'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저자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해 음모론자, 정치 극단주의자, 광신도 등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들의 가치관이 한순간 뒤집히는 장면을 목격하며 연구를 시작했다. 저자는 최신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연구를 통해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수년간 9-11테러 음모론을 주장한 유튜브버가 음모론을 철회한 이유는 그 어떤 명백한 증거보다 희생자 가족을 만나 감정적 교감을 나누는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한다.

또 백신 거부자 86%가 마음을 바꾼 결정적 계기, 동성애를 반대하던 조지 부시, 돌연 동성 결혼식에 참석한 까닭, 단 20분간의 대화로 낙태 합법화 찬성을 이끌어낸 사례 등을 소개한다.

저자는 '그들'과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한 번 더 대화하려는 노력,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 '왜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은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결국 견고한 벽을 두드리고 마침내 균열을 낼 것이라고 믿는다. <웅진지식하우스 2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